논리연구 18-1(2015) pp. 1-38

프레게와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대상 개념

박 정 일

【국문요약】『논리-철학 논고』에서 속성들과 관계들은 대상들인가? 나는 이 글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나는 이 글에서 『논고』의 대상 개념이 프레게의 대상 개념과 어떤 점에서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전자는 대상 개념과 관련된 프레게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논의가 형이상학적 논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논리적 관점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철학자는 램지이다.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램지의 논의를 경유하여 『논고』에서 관계들과 속성들이 대상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프레게, 비트겐슈타인, 램지, 대상, 개념, 속성, 관계

접수일자: 2014.10.06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4.11.25 게재확정일: 2015.02.11

1. 들어가는 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이하 '『논고』'로 약칭함)에서 아마도 가장 난해한 개념은 '대상'이다. 『논고』에서 대상은 사태와 사실, 세계, 현실, 실체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고, 이름, 요소 명제, 명제, 언어와 얽혀 있으며, 더 나아가 "완전한 분석"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만큼 '대상'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대상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논고』 전체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상이한 것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논고』의 대상 개념에 대해서 상충되는 입장이 왜 가능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이 『논고』를 집필하기 전에 지녔던 생각을 살펴보기로 하자. 비트겐슈타인은 『일기 1914-1916』(이하, '『일기』'로 약칭함)에서 1915년 6월 16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의 개념이다: **이것**(*This*).—[이는] **대상**의 개념과 동일하다.
> 관계들과 속성들, 등은 또한 **대상들**이다.[1)]

이 언급은 분명히 『논고』를 먼저 읽고 나서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 놀라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1918년 여름에 완성된) 『논고』에서는 **일견** 대상들이 속성들이나 관계들과는 다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관계들과 속성들이 대상들이라는 『일기』에서의 견해를 『논고』에서 포기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코피(1958), 앤스컴(1959), 그리핀(1964), 피처(1964), 블랙(1964), 포겔린(1987) 등은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램지(1931), 스테니어스(1960),

---

1) Wittgenstein (1961), p. 61.

힌티카(1986) 등은 부정적으로 대답한다.[2)]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느 쪽이 옳은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비트겐슈타인 연구자들의 논의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반면에 나는 그러한 고찰을 다른 논문에서 하고자 하며, 이 글에서는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나는 이 글에서 『논고』의 대상 개념이 프레게의 대상 개념과 어떤 점에서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전자는 대상 개념과 관련된 프레게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논의가 형이상학적 논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논리적 관점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철학자는 램지이다.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램지의 논의를 경유하여 『논고』에서 관계들과 속성들이 대상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프레게의 개념과 대상

프레게가 전 생애에 걸쳐 개념과 대상을 구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산수의 기초』(1884)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 원리를 제시한다.

---

2) 글록(H. Glock)은 전자의 진영을 (중세의 보편자 논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명론자 해석가라고 부르고, 후자의 진영을 실재론자 해석가라고 부르고 있다. ‘유명론자’에 따르면, 『논고』에서 속성들과 관계들은 대상들이 아니며, ‘실재론자’에 따르면 속성들과 관계들은 대상들이다. 또한 글록은 각각의 진영의 주요 논거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참고: Glock (1996), pp. 102-107.

-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문장의 맥락 안에서 낱말의 의미를 물어야 하지, 따로 떼어놓고 물어서는 안 된다.
- 개념과 대상의 차이를 명심해야 한다.[3]

이 세 가지 근본 원리는 프레게가 자신의 모든 저작에서 일관되게 지키고자 하였던 준칙이었다. 첫 번째 원리는 심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배격의 원리이고, 두 번째 원리는 소위 '맥락 원리'라고 알려진 것이다. 세 번째 원리에서 프레게는 개념과 대상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과연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 세 번째 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프레게가 『산수의 기초』(1884)에서 개념과 대상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우선 일반 개념어를 사물의 이름이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때문에 마치 수가 사물의 성질이라는 환상이 생겨나게 된다. 일반 개념어는 바로 개념을 나타낸다. 개념어는 정관사나 지시 대명사와 결합될 경우에만 사물의 고유 이름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 그것은 더 이상 개념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물의 이름은 고유 이름이다. 한 대상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이 한 개념 아래 속한다. (……) 개념의 경우는 무언가가 그 아래 속하는지 그리고 속한다면 무엇이 속하는지가 언제나 문제된다. 고유 이름의 경우 그런 물음은 아무런 뜻이 없다.[4]

이 인용문에서 프레게는 개념어와 고유 이름을 구분하고 있다. 가령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에서 '소크라테스'는 고유 이름이고, '는 현명하다'는 개념어이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

3) 프레게 (2003), pp. 38-39.

4) 프레게 (2003), p. 143.

스승이다"에서 '는 플라톤의 스승이다'는 개념어인데, 이 개념어가 "정관사나 지시 대명사와 결합될 경우"에는, 즉 '플라톤의 그(the) 스승'은 고유 이름의 역할을 하게 된다. 프레게는 "개념의 경우는 무언가가 그 아래 속하는지 그리고 속한다면 무엇이 속하는지가 언제나 문제된다. 고유 이름의 경우 그런 물음은 아무런 뜻이 없다." 라고 말함으로써 개념어와 고유 이름이 상이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프레게는 이미 『개념 표기법』(1879)에서 '함수'와 '논항'을 구분하였다. 그가 '함수'와 '논항'에 대한 일반적 정의로서 제시한 것은 다음이다.

> 한 표현에서 단순 기호나 복합 기호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리에 나타난다고 가정하자. (……) 만약 우리가 이들 기호가 나오는 한 자리나 여러 자리를 (그 경우마다 동일한) 다른 기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대체할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표현의 부분을 함수라 부르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그 함수의 논항이라 한다.[5]

가령 "철수는 영희를 이겼다"에서 '영희' 자리에 '영수'를 대체하면 "철수는 영수를 이겼다"를 얻을 수 있고, '순희'를 대체하면 "철수는 순희를 이겼다"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변하지 않는 표현의 부분인 "철수는 …를 이겼다"는 함수이고, 또 '영희', '영수', '순희'는 논항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의 인용문에서 프레게는 어떤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함수'와 '논항'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케니가 지적하고 있듯이) 『개념 표기법』에서 프레게는 문법적 주어와 문법적 술어라는 말을 논항과 함수라는 논리적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6]

---

5) 케니 (2002), p. 35; Frege (1997), p. 67.

이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이다. 그렇다면 프레게에게 고유 이름, 개념어, 개념, 대상, 함수, 논항 간의 관계란 무엇인가? 사실상 우리는 『산수의 기초』(1884) 단계에서는 프레게의 생각이 다소 불분명하고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고유 이름', '개념어', '함수', '논항'은 모두 언어적 표현에 부여된 것인 반면에, '개념'과 '대상'은 언어적 표현이 아닌 어떤 존재자에게 부여된 것처럼 보이고, 또 '개념어'와 '함수' 그리고 '개념'의 관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레게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수와 개념」(1891)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일반적인 진술들은, 등식들이나 부등식들, 또는 분석되는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두 부분들로, 즉 하나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다른 하나는 보충이 필요하거나 불포화된 것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우리는 '시저는 가울을 정복했다'(Caesar conquered Gaul)를 '시저'(Caesar)와 '는 가울을 정복했다'(conquered Gaul)로 나눈다. 두 번째 부분은 불포화되어 있다. 그것은 빈자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가 고유 이름으로 혹은 고유 이름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채워질 때에만 완전한 뜻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나는 이 불포화된 부분의 지시체에 '함수'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논항은 시저이다.[7]

프레게는 이제 함수와 논항이 모두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지시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함수와 논항이라는 지시체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은 '함수 기호(표현)'와 '논항 기호(표현)'가 될 것이다. 논항은 '시저'라는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시저라는 지시체이다. 마찬가지로 함수는 더 이상 어떤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불포화된 부분의 지시체'이다. 가령 $2 \times 1^2 + 1$, $2 \times 4^2 + 4$, $2 \times 5^2 + 5$라

---

6) 참고: 케니 (2002), p. 32.

7) Frege (1997), p. 139.

는 표현에서 공통된 내용이 함수이며, 이는 "$2 \times (\ )^2 + (\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1, 4, 5는 논항이다. 논항은 함수의 일부가 아니며, 함수와 결합하여 완전한 전체를 만든다. 함수 자체는 불완전한, 불포화된 것이며, 논항으로서의 1, 4, 5는 자립적인 대상이다.

그렇다면 프레게에게 함수와 개념 간의 관계란 무엇인가? 프레게는 「함수와 개념」(189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우리의 함수 $x^2 = 1$의 값이 항상 두 개의 진리치들 중 하나라는 것을 보았다. 이제 만일 한 특정한 논항, 예컨대 -1에 대해서, 그 함수의 값이 참(the True)이라면,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 -1은 그것의 제곱이 1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는, 더 간단하게, '-1은 1의 한 제곱근이다' 또는 '-1은 1의 제곱근이라는 개념 아래 속한다.' (……) 그렇게 해서 우리는 논리학에서 개념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다. 사실상 우리는 곧바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한 개념은 그 값이 항상 진리치인 함수이다.[8]

프레게에 따르면 "한 개념은 그 값이 항상 진리치인 함수이다." 다시 말해 한 개념은 어떤 특정한 함수이며, 그 값이 진리치인 그러한 함수인 것이다. 예컨대 "는 가울을 정복했다"는 함수인데, 논항이 채워졌을 때 "시저는 가울을 정복했다"가 참이므로, 즉 그 함수의 값이 참이라는 진리치이므로, 개념이기도 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게가 대상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함수와 개념」(189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리하여 우리가 제한 없이 대상들을 논항들과 함수의 값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생겨난다. 나는 어떤 정규적인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단순해서 논리적 분

---

8) Frege (1997), pp. 138-139.

> 석을 허용하지 않는 어떤 것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의미된 것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여기에서 나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한 대상은 함수가 아닌 어떤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에 대한 표현은 어떤 빈자리를 포함하지 않는다.[9]

이 인용문에서 프레게는 대상에 대한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대상은 함수가 아닌 어떤 것"이라고 간략하게 대답하고 있다. 그 차이는 물론 함수는 빈자리를 포함하는 반면에 대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제 이 대답에는 그 어떤 형이상학적 개입도 없다는 점을 유념하자. 그는 그저 **논리적 관점**에서 함수와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3. 프레게의 곤경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프레게는 『개념 표기법』(1879)과 『산수의 기초』(1884) 단계에서 보여주었던 자신의 다소 혼란스러운 어법을 「함수와 개념」(1891)에서 정교하게 수정하면서 새로운 어법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언어적 표현과 그것이 가리키는 것, 즉 지시체를 구분하고 있다. 이제 함수와 논항은 더 이상 언어적 표현이 아니며, 지시체이다. 특히 (1단계 함수에서) 논항이라는 지시체는 대상이다. 반면에 함수라는 지시체는 대상이 아니다. 개념은 어떤 특정한 함수, 즉 값이 진리치인 함수이다. 그리하여 프레게는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189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주어'와 '술어'를 언어적 의미로 간주하고 간단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개념은 술어의 지시체이다. 대상은 술어의 전체 지시체는 절대 될 수 없지만, 주어의 지시체는 될 수 있

---

9) Frege (1997), p. 140.

는 무엇이다."[10]

그런데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프레게는 의미와 관련해서 뜻과 지시체를 구분한다. 그의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1892)에 따르면, 가령 "$5 + 3 = 2^2 + 4$"에서 '$5 + 3$'과 '$2^2 + 4$'는 각각 8이라는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키지만, 양자는 제시 방식(the mode of presentation)이 다르고 그리하여 뜻이 다르다. 프레게에 따르면, "한 고유 이름의 지시체는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이다. 우리가 그 경우에 지니는 관념은 전적으로 주관적이다. 뜻은 고유 이름과 관념 사이에 놓여 있다. 뜻은 관념과 같이 주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상 자체도 아니다."[11]

더 나아가 프레게는 고유 이름뿐만 아니라 한 문장도 지시체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문장의 진리치는 그 문장의 지시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어떤 문장의 진리치란 그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이게 되는 상황이다. 이것 이외의 다른 진리치란 없다. 간단히 말해 나는 그 하나를 **참**(*The True*)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거짓**(*The False*)이라고 부르겠다. 단어들의 지시체들이 중요한 모든 서술적 문장은 하나의 고유 이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서술적 문장의 지시체는 참이거나 거짓이다.[12]

이 인용문에서 프레게는 서술적 문장이 하나의 고유 이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프레게에 따르면, 고유 이름의 지시체는 대상이다. 따라서 프레게에게 참과 거짓이라는 진리치는 대상이다.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뭔가 혼란스러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된다. 프레게는 가령,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에서 소크라테스

---

10) Frege (1997), pp. 186-187.

11) Frege (1997), p. 155.

12) Frege (1997), pp. 157-158.

라는 논항이 대상이고, 또 그 문장의 지시체도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그는 "…는 현명하다"라는 함수 기호는 개념 또는 함수라는 지시체를 지시하지만, 그러한 지시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함수나 개념은 지시체인데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함수나 개념은 지시체이므로 그것은 뜻일 수도 없고 관념일 수도 없다. 또한 프레게에 따르면, 그것은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는 한, 프레게에게는 개념이나 함수라는 지시체를 따로 부르는 용어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프레게는 『산수의 기초』(1884)에서 수가 자립적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함수나 개념을 '비자립적 **대상**'이나 '불포화된 **대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가? 또는 프레게에게 자립적 대상과 대조되는 비자립적 대상이란 무엇인가? 만일 비자립적 대상이라는 것이 없다면 자립적 대상이 곧 대상이요, 따라서 '자립적'이라는 단어는 군더더기가 되지 않는가?! 또한 어떻게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는 현명하다"가 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소크라테스')과 결합하여 그 결과("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가 한 대상을 지칭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

혹자는 바로 이러한 의문들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있다. 가령 우리는 다음의 문장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1) **말**이란 개념은 쉽게 얻어지는 개념이다.

케니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프레게는 개념과 대상을 구분하는 문법적 기준으로 표현 앞에 나오는 정관사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개념이 아니라 대상을 지시한다는 확실한 징표로 삼았다."[13] 그

런데 우리가 이러한 프레게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1)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아해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케니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 '**말**이란 개념'(the concept *horse*)이란 표현은 정관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프레게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대상을 지시해야만 한다. 한편 그 내용 때문에 확실히 그것은 개념을 지시해야만 한다. 그래서 개념과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너진다.[14]

즉 우리는 (1)에서 개념이면서 또 동시에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얻는다. 즉 '**말**이란 개념'은 그 내용상 개념이며 또 프레게의 기준에 의하면 (정관사를 지니고 있으므로)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개념과 대상은 프레게의 생각처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프레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응수했는가? 그는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1892)에서 '**말**이란 개념'이라는 표현이 한 대상을 지칭하며, 또 바로 그 점에서 그 표현은 개념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15] 즉 **말**이란 개념은 대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1)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따라서 여기에서 한 개념에 관해 말해진 것은 결코 한 대상에 관해 말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한 고유 이름은 비록 그것이 한 술어적 표현의 부분일 수 있지만 결코 그 술어적 표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에서 한 개념에 관해 말해진 것을 한 대상에 관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뜻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16]

---

13) 케니 (2002), p. 176; Frege (1997), p. 184.

14) 케니 (2002), p. 176.

15) Frege (1997), p. 184.

16) Frege (1997), pp. 188-189.

이 인용문에서 프레게는 (1)과 같은 문장이 불가능하다거나 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최소한 그렇게 의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앞에서 (1)이 거짓이라고 했던 자신의 주장과는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이러한 프레게의 대답은 일관성 있는가?[17]

다음으로 프레게는 **말**이란 개념은 개념이 아니며 대상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당화한다.

> "이 장미는 빨갛다"라는 문장과 관련해 우리가 말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문법적 술어 '는 빨갛다'는 주어 '이 장미'에 속한다. 여기서 "문법적 술어 '는 빨갛다'"는 문법적 술어가 아니라 주어이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술어라고 분명히 부르는 그 작용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에서 그 속성을 앗아가 버린다.[18]

그러나 과연 이러한 프레게의 주장은 설득력 있는가? 나는 프레게가 겨냥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프레게는 다음의 두 문장을 다루고 있다.

(2) 이 장미는 빨갛다.
(3) 문법적 술어 '는 빨갛다'는 주어 '이 장미'에 속한다.

그러면서 그는 (3)에서 "문법적 술어 '는 빨갛다'"는 문법적 술어가

---

17) 이 문제에 대해서 케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프레게에게 아주 호의적인 논평자들조차도 이 점에서 그를 옹호하기를 꺼린다. 그들은 "**말**이란 개념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프레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그들은 프레게는 적어도 문법적 주어가 '…라는 개념'인 문장은 어느 것이나 잘못 형성된 문장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비판자들에 맞서 자신을 변호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프레게는 "**말**이란 개념은 개념이다"는 거짓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은 그냥 무의미하다."(케니 (2002), p. 177)

18) 케니 (2002), p. 178; Frege (1997), p. 185.

아니라 주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명시적으로 술어라고 분명히 부르는 그 작용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에서 그 속성을 앗아가 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문장을 생각해 보자.

(4) (2)의 문법적 술어 ‘는 빨갛다’는 주어 ‘이 장미’에 속한다.

(4)에서 “(2)의 문법적 술어 ‘는 빨갛다’”는 물론 문장 (4)의 주어이지만, 여전히 (2)의 문법적 술어, 즉 ‘는 빨갛다’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2)의 문법적 술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것들은 주어 자리에 올 때 주어라는 문법적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지만(바로 이 점이 프레게가 주장한 것이다), 반면에 그것들은 여전히 내용에 있어서는 술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개념은 프레게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상일 수도 있지만, A가 어떤 말의 이름일 때, “A는 말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표현된 개념(또는 그 명제를 통해 표현된 **말**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한 개념을 가리키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어떤 술어?”라고 질문을 하면 “…라는 문장의 …라는 술어”(가령 (2)의 ‘는 빨갛다’라는 술어)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어떤 개념?”이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A는 말이다”라는 문장에 나오는 “**말**이라는 개념”이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개념과 대상의 논리적 기능

앞에서 우리는 (1단계 함수의) 논항이 지시체이면서 대상인 것과 달리 개념은 특정한 함수이면서 지시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아니라는 프레게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프레게의 생각에서 양면성을 본다. 한편으로 그는 개념과 대상의 유사성을 지적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둘 다 지시체인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개념과 대상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논리적 관점에서** 본질적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프레게가 왜 함수와 논항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프레게는 『개념 표기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음의 두 문장에 대해 생각해 보자.

(5) 철수는 영희를 이겼다.
(6) 영희는 철수에게 졌다.

(5)와 (6)은 문법적 주어와 문법적 술어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게에 따르면, (5)와 (6)은 동일한 '**개념적 내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5)와 (6)의 주어와 술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전혀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 않는다. 케니가 말하듯이, "두 문장의 이런 차이는 그들 문장으로부터 무엇이 논리적으로 따라 이끌어지는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첫째 문장에서 이끌어지는 것은 어느 것이나 둘째 문장에서도 이끌어지며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따라서 프레게는 그런 두 문장은 개념적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19]

그리하여 프레게는 『개념 표기법』에서 "내가 판단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구분이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않는다"[20]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주어와 술어의 구분이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가? 왜냐하면 개념적 내용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것은 주어나 술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5)와 (6)은 주어와 술어는 각각 다르지만 개념적 내용은 동일하다. 그리하여 이제 문법적 주어와 문

---

19) 케니 (2002), p. 32.
20) Frege (1997), p. 53.

법적 술어의 개념 대신에, 개념적 내용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안으로서 함수와 논항이 주어진다. 요컨대 개념적 내용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것은 논항 자리에 들어가는 논항들과 빈자리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에서 (1단계 함수에서) 논항은 대상이고 함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본질적인 것인가? 우리는 논항과 함수가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러나 예컨대, 『수학 원리』에 나타나 있는바 논리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명제들에 아주 잘 적용될 수 있으며, 예컨대 "모든 사람은 가사적이다"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로부터 이 논리학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가사적이다"가 따라 나오는데, 이는 비록 내가 사물 소크라테스나 가사성의 속성이 어떤 구조를 지니는지를 똑같이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옳다. 여기에서 그것들은 그저 단순 대상들로 기능할 뿐이다.[21]

요컨대 "소크라테스는 가사적이다"에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물과 가사성이라는 속성은 논리적 관점에서는 "단순 대상들로 기능할 뿐"이며, 그리하여 프레게가 강조하는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램지에게서 보다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전개된다. 프레게가 논리적 관점에서 주어와 술어의 구분을 폐기하고 함수와 논항의 구분으로 나아갔을 때, 왜 그는 대상의 완전성과 함수의 불포화성을 견지하는가? 램지는 그의 논문 「보편자들」(1925)에서 바로 이러한 방식의 물음을 제기한다. 그가 제시한 예를 살펴보자.

---

21) Wittgenstein (1961), p. 69.

(7)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8) 현명함은 소크라테스의 한 특성이다.

램지는 (7)과 (8)이 "동일한 사실을 주장하고 동일한 명제를 표현한다"고 말한다.

> 그것들[(7)과 (8)]은 물론 동일한 문장이 아니지만, 두 개의 상이한 언어에서 두 문장이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느 문장을 우리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문체(literary style)의 문제이거나 우리가 사실을 접근하는 관점의 문제이다. 만일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소크라테스라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라고 말하며, 만일 우리가 현명함을 논의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명함은 소크라테스의 한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것을 말하든 우리는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 문장들 중의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주어이고, 다른 하나는 '현명함'이다. 따라서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주어이고 술어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명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문장을 사용하느냐에 의존하며, 소크라테스나 현명함의 논리적 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적으로 문법 학자에게 문제인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충분히 탄력 있는(elastic) 언어에서는 어떤 명제든 그것의 항들 중 어떤 것이든 주어이게끔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한 명제의 주어와 술어 간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도 없으며, 대상들의 어떤 기초적인 분류도 그러한 차이에 기초할 수 없다.[22]

이 인용문에서 램지는 (7)과 (8)이 개념적 내용이 동일하며, '소크라테스'와 '현명함' 중 어느 것이 주어인가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나 현명함의 논리적 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프레게에게는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대상이지만, '현명함'은 개념이다. 프레게는 (7)은 소크라테스에 관한 명제이고, 그리하여 1단계 명제이지만, (8)은 현명함이라는 개념에 관한 명제이

---

22) Ramsey (1931), p. 116.

고, 그리하여 2단계 명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램지에게는 그러한 규정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7)과 (8)은 개념적 내용과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램지는 (비록 그가 프레게를 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레게의 대상과 개념이라는 "기초적인 분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7)과 달리 (8)은 '특성'이나 '속성'과 같은 (형식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7)과 (8)은 개념적 내용이 동일할 수 없다고 응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8) 대신에 다음과 같은 명제를 생각할 수 있다.

(9) 현명함은 소크라테스에게 들어맞는다.[23]

(9)는 (8)과 달리 '특성'이나 '속성'과 같은 (형식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7)과 (9)는 전적으로 개념적 내용이나 의미가 동일하다. 따라서 (7)이 『논고』에서의 그림이라면 (9) 또한 그림이며, 서로 동일한 그림이다.[24] 따라서 (7)과 (9)에 대한 프레게 방식의 규정은 불필요하다.

이제 (7)이 사용되는, 오직 개념적 내용이 문제가 되는 추론에서는 (9)도 항상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25] 가령

---

23) 이를 "현명함은 소크라테스에 적용된다"나 "현명함은 소크라테스에 해당된다"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 램지 또한 (9)와 같은 명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q는 a를 특징짓는다'(q characterizes a)는 'a는 q이다'(a is q)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길게 늘인(lengthened) 언어적 형식에 불과하다."(Ramsey (1931), p. 133)

24) 참고: "p가 q로부터, 그리고 q는 p로부터 따라 나온다면, 그것들은 하나의 동일한 명제이다."(5.141)

25) 그러니까 (7)과 (9)의 문법적 차이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방식의 추론은 제외된다: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의 주어는 '소크라테스'이다. 그러므로 "현명함은 소크라테스에게 들어맞는다"의 주어는 '소크라테스'이다.

다음의 추론에서

소크라테스가 현명하다면 플라톤은 현명하다.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현명하다.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자리에 “현명함은 소크라테스에게 들어맞는다”가 대체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론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추론에서

모든 사람은 가사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가사적이다.

“소크라테스는 가사적이다” 자리에 “가사성은 소크라테스에게 들어맞는다”를 대체해도 이러한 추론은 성립한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가 주어이냐 아니면 ‘현명함’이 주어이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사물 소크라테스나 가사성의 속성이 어떤 구조를 지니는지를 똑같이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저 그러한 구조가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 대상들”로 기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프레게가 주장하는 바, 그러한 구조와 관련된 것, 즉 대상은 완전한 것이고, 함수는 불포화된 것이라는 생각은 개념적 내용의 동일성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5. 개념과 대상의 자립성과 비자립성

앞에서 우리는 프레게가 대상은 완전하고 자립적인 데 반해, 개념은 불완전한 것이고 불포화된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결코 대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프레게의 생각은 정당한 것인가? 만일 프레게가 말하는 대상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비자립적이고 불포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개념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립적이고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논리적 관점에서는 첫째,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이 그 기능이 동일할 수 있다는 것, 둘째, 프레게의 완전성-불포화성 규정이 명제의 개념적 내용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살펴보았으므로, 개념은 결코 대상이 아니라는 프레게의 주장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1단계) 함수와 논항은 모두 지시체라는 점에서 모두 한 가지 이름이, 예컨대 '대상'이라는 이름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먼저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제시한 언급을 살펴보기로 하자.

> 사물은 그것이 모든 **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자립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의 형식은 사태와의 연관 형식, 즉 비자립의 형식이다. (낱말들이 상이한 두 방식으로－단독으로, 그리고 명제 속에서－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22)[26]

이 인용문을 보면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의 맥락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오직 명제만이 뜻을

---

26) 비트겐슈타인 (2006), p. 21.

가진다. 오직 명제 연관 속에서만 이름은 의미를 가진다."(3.3)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맥락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낱말들은 오직 명제 연관 속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단독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그리하여 "낱말들이 상이한 두 방식으로－단독으로, 그리고 명제 속에서－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한 사물이 자립적이라는 의미를 그 사물이 "모든 **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사물은 비자립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즉 "사태와의 연관"이라는 점에서 비자립적이다. 가령 소크라테스라는 사물은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다, 등등의 모든 사태(그것들이 '사태'라고 가정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립적이다. 반면에 "소크라테스 …"가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즉 '…'에 나오는 것)과 결합되어 사태를 형성할 때에만 그 문장이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비자립적이다.

우리는 이 점을 『논고』의 존재론의 주요 논제를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다.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1.1)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1) "세계는 사실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사실들이라는 점에 의하여 확정된다."(1.11) 이러한 일련의 언급을 보면, 『논고』에서 세계의 기본 구성단위는 사실과 사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언어의 기본 구성단위는 명제와 요소명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 사물은 모든 가능한 사태나 사실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립적이다. 반면에 그 사물은 다른 것들과 결합하여 사태나 사실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비자립적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립성과 비자립성의 개념이 프레게와 비트

겐슈타인에게서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레게에게는 '소크라테스'는 자립적이지만 '현명함'은 (또는 '…는 현명하다'는) 비자립적이다. 반면에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비자립성은 명제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주어진다.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에서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은 각각 명제 속에서 다른 것과의 연쇄 속에서 명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둘 다 비자립적이며, 모든 가능한 명제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둘 다 자립적이다.

그런데 램지는 바로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프레게의 불포화성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러셀을 비판한다.

> 이 이론의 거대한 어려움은 어떻게 한 종류의 대상이 특별히 불완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어떤 대상도 불완전하다는 한 가지 의미가 있다. 즉 그것[대상]이 한 대상 또는 적절한 유형의 대상들과의 연관에 의해서만 한 사실에서 나타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 명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름에 어떤 다른 적절한 유형의 이름들을 결합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불완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27]

램지는 바로 이 인용문에 이어 앞에서 논의되었던 『논고』의 언급 2.0122를 인용한다. 그 다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명한'이 한 명제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하지만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을 구분하는 어떤 근거를 보는 것도 어렵다."[28] 다시 말해, 램지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나 '현명한'은 모두 다른 유형의 이름들과 결합해서 명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고 비자립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대상과 개념에 대한 러셀과 (프레게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프레게의 주장을 비판하고

---

27) Ramsey (1931), p. 121.

28) Ramsey (1931),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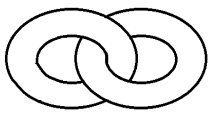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프레게의 (1단계 함수의) 논항과 함수의 구분에 대해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연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를 ‘소크라테스’라는 논항과 ‘…는 현명하다’라는 함수로 분석(또는 분해)하는 것은 정당한가? 프레게에 따르면 전자는 완전한 것이고 후자는 불포화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둘은 어떤 방식의 (화학적) 작용을 거쳐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라는 문장을 생성하는가? 또한 그러한 분해는 프레게 자신의 맥락 원리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문장의 맥락 안에서 낱말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소크라테스’ 또한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와 같은 문장들에 의존적이며 비자립적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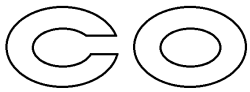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의 ‘포화-불포화’라는 화학적 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슬의 고리** 비유를 제시하면서 응수한다.

사태 속에서 대상들은 사슬의 고리들처럼 서로 걸려 있다. (2.03)

사태 속에서 대상들이 사슬의 고리들처럼 서로 걸려 있다면, 이를 나타내는 명제에서도 이름들은 사슬의 고리들처럼 서로 걸려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쇠사슬의 고리들을 생각해 보자. 가령 2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을 생각해 보자.



이 사슬을 “A-B 사슬”이라고 부르고, 왼쪽 고리를 “A 고리”, 오른쪽 고리를 “B 고리”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해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어느 한 고리를 절단해야 할 것이다. 가령 왼쪽 고리 A가 절단되어 다음과 같이 분해되었다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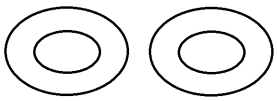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사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더 이상 사슬의 고리들도 **아니다**. 왼쪽 절단된 것을 "절단된 C 원환"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것을 "온전한 D 원환"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제 이러한 상황을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와 비교해 보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사태 속에서 대상들은 사슬의 고리들처럼 서로 걸려 있다."(2.03) 즉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은 A 고리와 B 고리와 같이 걸려 사슬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단순히 원환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A-B 사슬"과 같은 것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현명함은 소크라테스에게 들어맞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프레게의 맥락 원리에 따라, 오직 이러한 사슬이라는 맥락에서만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은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프레게는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를 '소크라테스'와 '…는 현명하다'로 분해한다. 이제 이것들은 과연 각각 고리 A나 고리 B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프레게가 대상에 대해 자립성을 부여하는 순간 그는 비자립적인 고리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절단된 C 원환이나 온전한 D 원환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원환들을 나열하는 것은 더 이상 본래의 사슬을 형성할 수 없다. 그것들은 더 이상 '고리'가 아니며, 그저 절단된 원환과 온전한 원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프레게 식의 문장에 대한 분해는 프레게 자신의 맥락 원리와 상충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원환들을 나열하는 것도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더 이상 사슬이 아니며, 다시 말해 명제가 아니다. 명제는 이름들

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요컨대 “A-B 사슬”은 다음과 같은 원환들의 집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명제는 낱말들의 혼합물이 아니다.”(3.141) 비트겐슈타인은 “A-B 사슬”이 다른 원환들의 집합과 다른 점을 명제 기호가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으로 해명한다.

> 명제 기호는 그 요소들, 즉 낱말들이 그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다.
> 명제 기호는 하나의 사실이다. (3.14)
> 오직 사실들만이 뜻을 표현할 수 있고, 이름들의 집합은 그렇게 할 수 없다.(3.142)

명제 기호에서 낱말들은 그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예컨대 “A-B 사슬”과 같이 고리들로 걸려 있다. 마찬가지로 aRb라는 명제기호는 고리가 세 개인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다. 요컨대 이 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의 맥락 원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 문장이라는 맥락을 떠나서 어떤 낱말에 대해 단독으로 어떤 성질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라는 문장의 맥락에서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은 고리들이며 서로 걸려 사슬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둘 다 비자립적이다.[29]

---

29)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에게는 가령 Ws(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에서 기호화하거나 지칭하는 것은 단독으로 분리된 W나 s가 아니라, 오히려 W가 어떤 이름(s) 왼쪽에 있다는 사실과 s가 어떤 기호(W) 오른쪽에 있다는 사

6. 대상과 개념의 완전한 대칭

이제 프레게가 발명한 기호법에 따라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를 Ws로 표기하기로 하자. 이때 우리는 보통 W는 '…는 현명하다'를 기호화한 것이고, s는 '소크라테스'를 기호화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해서는 왜 안 되는가? 즉 W는 '현명하다'를 기호화한 것이고, s는 '소크라테스(는) …'을 기호화한 것이라고.[30] 또는 프레게의 표기법 Ws에서는 어디에 W라는 개념어의 불포화성이 표기되어 있는가? 혹시 우리는 그 불포화성을 표기하기 위해 '(…W)s'라고 써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프레게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즉 그 불포화성은 x가 변항일 때 Wx로 표기된다고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s의 불포화성을 표기하기 위해 X가 변항일 때 Xs로 표기하면 왜 안 되는가?[31]

실이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컨대, "aRb"에서, "R"은 한 상징이 **아니며**, 오히려 "R"이 한 이름과 다른 이름 사이에 있다는 **것**(*that*)이 기호화한다(symbolizes)."(Wittgenstein(1961), p.108) 이러한 생각은 『논고』 3.1432("복합적 기호 'aRb'가 a는 b에 대해 R이라는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가 아니라, "a"가 "b"에 대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이 aRb**임**을 말한다.)에 집약되어 등장하고 있다.

30) 선우환(2005) 또한 이러한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램지 방식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지만(pp. 250-251), 그의 '수정 이론'에서 "언어적 표현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은 의미론적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p. 265)고 함으로써 결국 프레게의 생각에 동조한다. 그에 따르면, "프레게가 보여 준 가장 중요한 통찰은 논리적 술어를 일종의 함수적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p. 242)이다. 그러나 램지라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 주어와 논리적 술어 간의 "완전한 대칭"으로 응수하게 될 것이다.

31) 마찬가지로 Wx라는 함수로부터 명제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이며, 이는 상항 s를 x에 대입하여 Ws를 얻는 것과 양화하는 것, 즉 (x)Wx인데, 바로 이 점이 그러한 개념어의 불포화성을 보여준다는 대답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ϕ가 변항일 때, ϕs로부터 명제를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즉 ϕ에 W를 대입하여 Ws를 얻는 것과 양화하는 것, 즉 (ϕ)ϕs가 그것이다.

문제를 정리해 보자. 비트겐슈타인과 램지의 관점에서는, Ws라는 명제를 기본 단위로 보고, W와 s가 (고리들로서) 결합해서만 명제 Ws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W와 s는 둘 다 비자립적이다. 반면에 프레게의 시각으로 보면, s는 자립적이고 W는 비자립적이다. 그렇다면 그 자립성과 비자립성은 무엇에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s와 같은 명사는 단독으로 쓸 수 있지만, W는 단독으로 쓸 수 없고 오직 Wx와 같이 변항 x를 포함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술어 W의 불포화성과 주어 또는 대상 s의 완전성이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러셀은 바로 이러한 프레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특수자와 보편자가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존재자들을 두 집합으로 나눈다. 한 가지는 특수자들(particulars)인데, 이는 "술어들이나 관계들의 항들의 주어들로서만 복합체 안으로 들어온다." 다른 한 가지는 보편자들(universals)인데, 이는 "술어들이나 관계들로서 복합체들에서 나타날 수 있다".[32] 러셀에 따르면, "어떤 문장도 보편자를 지시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어가 없이는 주장될 수 없다."[33] 그에 따르면, "우리가 '빨간'(red)을 이해할 때 이는 우리가 'x는 빨갛다'(x is red)라는 형식의 명제들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바로 이 때문에 한 술어의 이해는 한 이름의 이해보다 좀 더 복잡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술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명제의 형식을 끌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34]

그러나 과연 주어와 술어는 그렇게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가령 s와 같은 명사도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ϕ가 변항일 때 ϕs로 써야 한다고 맞대응할 수 없는가? 그런데 램지는 명사와 달리 술어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32) Russell (1911), p. 123-124.
33) 러셀 (1989), p. 103.
34) Russell (1918), p. 205.

지적한다. 그는 Rb ∨ Sb의 예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R과 S는 관계이다. 이제 우리는 ϕ = Rb ∨ Sb라고 놓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R과 S의 왼쪽 항에 동일한 논항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상이한 논항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35]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ϕx = xRb ∨ xSb라고 정의해야 하며,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ϕ를 단독으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ϕx로 써야 한다. 그러나 램지에 따르면 모든 술어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 그러나 xRb ∨ xSb에 대한 이러한 결론은 모든 명제 함수들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ϕa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원자 명제라면, 'ϕ'는 a와는 다른 항의 한 이름이고, 완벽하게 잘 자립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문될 것인데, 왜 우리는 이 경우에 또한 'ϕ' 대신에 'ϕx'라고 쓰는가? 이에 대한 이유는 수리논리학의 근본적인 특징, 즉 그것의 외연성에 놓여 있는데, 즉 그것의 일차적인 관심이 집합들과 외연적인 관계들에 있다는 뜻에서이다.[36]

램지는 ϕ = Rb ∨ Sb라고 정의할 수 없고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ϕ만을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ϕx라고 써야 하지만, 다른 특수한 경우에는 이름 a와 같이 ϕ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위에서 제시한 예는 ϕa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원자 명제인 경우이다. 그렇게 되면 "'ϕ'는 a와는 다른 항의 한 이름이고, 완벽하게 자립적"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수학에서 술어 ϕ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ϕx를 사용하는 것은 수리논리학의 근본적인 특징인 외연성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집합들과 외연적인 관계들뿐만 아니라, 어떤 성질과 속성에 대해서, 다시 말해 내포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ϕ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게 될

35) Ramsey (1931), p. 130.

36) Ramsey (1931), pp. 130-131.

것이다.

이제 램지는 s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W는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명한다. 그는 먼저 '…는 현명하다'와 '소크라테스(는) …'이 일견 다른 방식으로 문장들의 모임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ϕs, 즉 'ϕ 소크라테스'는 ϕ가 변항이고 s가 소크라테스일 때,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소크라테스는 공정하다', '소크라테스는 현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와 같은 **한 가지** 명제들의 집합을 대신할 수 있다. 반면에, '…는 현명하다'는 **두 가지** 종류의 집합들을 대신할 수 있다.

> 이제 '현명한'이라는 표현을 고려해 보자: 이것을 우리는 'x는 현명하다'의 값들인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플라톤은 현명하다', 등과 같은 명제들을 함께 모으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 '현명한'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모음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모든 명제들을 모으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명한'이 나오는 모든 명제들을 모으기 위해 '현명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와 같은 명제들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안 현명하다'(Neither Socrates nor Plato is wise)와 같은 명제들도 포함하며, 이것들은 'x는 현명하다'의 값들이 아니고, ϕ가 변항일 때 다른 함수 'ϕ 현명한'(ϕ wise)의 값들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명제들의 한 모음만을 주는 반면에, 현명한(wise)은 두 개의 모음을 준다: 하나는 소크라테스에 의해 주어진 것과 유사한 것, 즉 현명한(wise)이 나타나는 모든 명제들의 모음이며, 다른 것은 형식 'x는 현명하다'의 명제들의 더 좁은 모음이다.[37]

하나는 Wx, 즉 'x는 현명하다'의 값들인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플라톤은 현명하다', 등등의 집합이고, 다른 하나는 'ϕ 현명한'(ϕ wise)의 값, 예컨대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안 현명하다'(Neither

---

37) Ramsey (1931), p. 124.

Socrates nor Plato is wise)와 같은 것들의 집합이다. 램지는 이러한 불일치를 거론하면서 바로 이것이 러셀의 보편자-특수자의 구분을 가능케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술어를 함수 표현, 즉 불포화된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간주한다.[38] 이러한 불일치, 즉 '소크라테스'가 한 종류의 명제들의 모음만을 결정하고 '현명한'은 두 종류의 명제들의 모음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램지는 소크라테스의 속성들(properties) 중에서 "오직 하나의 단순한 속성을 **성질**(quality)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그러한 불일치는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서 연유하며, 그것은 도대체 진정한 차이인가? 다시 말해, 우리는 '소크라테스'로 우리가 '현명한'으로 하는 것을 할 수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전체 집합보다 더 좁은 명제들의 한 집합을 모으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가? 이는 불가능한가, 아니면 단지 우리가 사실상 그것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인가?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물음들이다. 그것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속성들(properties) 중에서 성질들(qualities)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을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에서] 그 생각이란 거칠게 말하면 오직 한 단순한 속성이 한 성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현명한'과 연관하여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와 연관하여 명제들의 두 집합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속성들을 주장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명제들의 넓은 집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소크라테스의 성질들을 주장하는 더 좁은 집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함과 현명함이 성질들이라고 가정하면,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소크라테스는 공정하다'는 더 좁은 집합에 속하게 될 것이며, 함수 '소크라테스는 q이다'(Socrates is q)의 값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현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소크라테스의 한 성질을 주

38) "이것은 명백하게도 러셀 씨가 현명한(wise)으로 우리는 한 명제의 형식을 끌어들여야만 한다고 말함으로써 표현한, 우리가 느끼는바 소크라테스와 현명한(wise)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Ramsey (1931), p. 124)

> 장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복합적인 특성이나 속성을 주장하게 될 것이며, 함수 'φ 소크라테스'의 값이 될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q이다'의 값은 되지 않을 것이다.[39]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q는 속성들 중에서 단순한 속성, 즉 성질을 나타내는 변항이다. 램지에 따르면, 그러한 q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q이다'(Socrates is q)의 값들은 'x는 현명하다'와 같은 좁은 집합들을 형성하며, 'φ 소크라테스'는 'φ 현명한'에 대응하는 넓은 집합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그는 개별자들과 함수들(성질들) 간에는 "완전한 대칭"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성질들과 개별자들 간의 완전한 대칭을 지니게 될 것이며, 각각은 홀로 설 수 있는 이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은 명제들의 두 영역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a는 q와 φ가 변항들일 때, qa와 φa라는 영역들을 결정할 것이고, q는 x와 f가 변항들일 때, qx와 fq라는 영역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40]

7.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대상 개념

앞 절의 마지막 인용문에서 램지는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이 완전한 대칭을 이룬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우리는 "성질들과 개별자들 간의 완전한 대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자립적이라면 (q에 해당되는) 성질도 자립적이며, 성질이나 속성이 비자립적이라면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비자립적이다. 요컨대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은 동일한 방식으로 자립적이고, 또 비자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어진 명제에서 논리적 기능이 동일

39) Ramsey (1931), p. 125.
40) Ramsey (1931), p. 132.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램지의 생각은 물론 비트겐슈타인에게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이다.[41] 이제 서두에서 인용되었던 『일기』의 1915년 6월 16일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의 개념이다: **이것**(*This*). – [이는] **대상**의 개념과 동일하다.
> 관계들과 속성들, 등은 또한 **대상들**이다.[42]

이 언급에서 "이것"은 가령 러셀의 논리적 고유 명사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의 언급에서 나타나있듯이 우리가 그 말을 통해 가리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어떤 사물들뿐만 아니라 관계들과 속성들도 "이것"이라고 하면서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일기』의 1915년 5월 31일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 이름들은 **이** 사물(*this* thing)이 **저** 속성(*that* property)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의 주장을 위해 필요하다.[43]

다음으로 러셀에게는 오직 술어만 형식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그리하여 술어가 함수라는 프레게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대상을 나타내는 이름들도 형식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상이 사태들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상의 형식이다."(2.0141) "공간과 시간과 색깔(채색성)은 대상들의 형식들이다."(2.0251)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이름이나 대상을 제외하고 술어나 함수만 형식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

41) 몽크에 따르면, 1923년 가을 비트겐슈타인과 램지는 2주일 동안 매일 다섯 시간씩 『논고』를 한줄 한줄 검토했다. 참고: 몽크(2000), pp. 299-300.

42) Wittgenstein (1961), p. 61.

43) Wittgenstein (1961), p. 53.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와 러셀과 같이 함수와 논항의 구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명제를 나는－프레게와 러셀처럼－그 속에 포함된 표현들의 함수로 파악한다.”(3.318) 그러나 이러한 파악은 프레게와 러셀과는 완전히 다르다. 가령 비트겐슈타인에게 Ws로부터 형성된 Wx나 Xs는 모두 함수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논항은 전자는 s이고 후자는 W이다. s와 W는 유형이 다를 뿐, (Ws가 요소 명제라고 가정할 때) 둘 다 이름이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대상들이다. 반면에 프레게에게는 s는 완전하고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W는 불포화된 것이고 오직 Wx와 같이 빈자리를 명시하면서 사용되어야 한다. Wx는 (1단계) 함수이지만, Xs는 Wx와는 다른 유형의 함수이다. 즉 Xs는 X 자리에 여러 속성들이 대입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속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2단계 함수인 것이다. 반면에 비트겐슈타인에게는 Wx와 Xs는 그저 함수일 뿐이고, 프레게의 1단계 함수와 2단계 함수의 구분은 불필요하다.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의 1단계 함수와 2단계 함수의 구분을 거부하리라는 점은 『논고』의 일반성 개념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논고』에 따르면, “ξ의 값들이 x의 모든 값들에 대한 함수 fx의 값 전체라면, $N(\bar{\xi}) = \sim(\exists x).fx$가 된다.”(5.52) 그리하여 x의 모든 값들이 a, b, c, d, …라면, $N(\bar{\xi}) = \sim fa \ \& \ \sim fb \ \& \ \sim fc \ \& \ \sim fd \ \& \ \cdots = \sim(\exists x)fx = (x)\sim fx$이다. 또한 x의 모든 값들이 a, b, c, d, …라면, $(\exists x).fx = fa \vee fb \vee fc \vee fd \vee \cdots$이다.[44] 이제 프레게가 “모든 철학자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어떤 특정한 철학자에 관한 언명이 아니라 개념 **철학자**에 관한 언명이고 그리하여 2단계 개념을 포함하는 명제로 간주했다는 것을 주목하자.[45] 반면에 그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는 소

44) 참고: 박정일 (2014).

크라테스라는 대상에 관한 언명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언명은 어떠한가?

(10)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고 플라톤은 철학자이다.

프레게는 (10)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관한 언명이고, 1단계 함수를 포함하는 명제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위의 일반성 규정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에게는 "(x)(x는 철학자다"는 "a는 철학자이고, b는 철학자이고, c는 철학자이고, …"와 같다. 그리고 이는 (10)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관한 것이듯이, 모든 대상 a, b, c, …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논고』의 일반성 개념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보편 명제나 존재 명제는 오직 개념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속성들이나 관계들도 대상이라고 보는 『논고』의 견해는 술어들을 양화하는 경우에 프레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점은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에 대한 다음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는 다른 모든 명제와 마찬가지로 합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x,ϕ).ϕx"에서 "ϕ"와 "x"를 따로따로 언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세계에 대한 지칭 관계에서 이 둘은 일반화되지 않은 명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적이다.)(5.5261)[46]

『논고』에 따르면,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란 "(∃x,ϕ).ϕx" 또는 "(∃x)(∃ϕ).ϕx"와 같이 개체 상항이나 술어 상항이 나오지 않고 오직 논리 상항과 속박 변항들만 나오는 명제를 말한다. 그런데 이

---

45) 참고: 프레게 (2003), pp. 137-139.

46) 비트겐슈타인 (2006), p. 84.

러한 명제들을 그러한 표기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정당한가? 프레게가 주장하듯이 술어 ϕ가 빈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본질적이라면, 양화기호에서 "(∃x,ϕ)"라고 쓰는 것은 대단히 어색하지 않은가? 혹시 그는 "(∃x,ϕx).ϕx"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최소한 그는 어떤 다른 방식의 표기법을 고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속성들이나 관계들도 대상들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 따르면, "(∃x,ϕ).ϕx"나 "(∃x)(∃ϕ).ϕx"와 같은 표기법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에 따르면, 그 명제에서 우리가 "ϕ"와 "x"를 따로따로 언급해야 한다는 점은 그 명제가 합성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들이 세계에 대한 지칭 관계에서 독립적이라는 점은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에게 프레게 방식의 차이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체 변항뿐만 아니라 술어 변항에 대해서도 양화 기호를 붙일 수 있으며, "빈자리"와 관련된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속성들과 관계들도 대상들이라는 『논고』의 견해는 프레게의 소위 **말** 개념의 역설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하여 속성들과 관계들이 아닌 대상을 "사물(Ding)-대상"이라고 부르고, 속성과 관계를 각각 "속성-대상", "관계-대상"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 말임(being horse)이라는 속성은(또는 **말**이라는 개념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속성(개념)이며, 또 요소 명제에서의 속성은 속성-대상이고 사물-대상이 아니다. 가령 "빨강"을 요소 명제에서의 속성이라고 가정할 때, **빨강**이라는 개념은 개념이고, 또 개념-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고』에서는 "**말** 개념은 개념이 아니다"로부터 발생하는 프레게의 역설은 가능하지 않다.

8.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프레게가 개념과 대상에 대해 부여한 중요한 차이가 과연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의미한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프레게는 개념과 함수, 그리고 논항과 진리치는 모두 어떤 기호들의 지시체이지만, (1단계 함수의) 논항과 진리치라는 지시체는 대상인데 반해 개념과 함수라는 지시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하였다. 그 차이는 전자는 자립적이고 완전한 것인데 반해 후자는 불완전하고 불포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연 설득력 있는가? 특히 그것은 그의 맥락 원리와 일관적인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우리는 비트겐슈타인과 램지가 프레게의 맥락 원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견지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언어의 기본 단위는 낱말이 아니라 명제이다. 더구나 논리적 관점에서는 명제들은 개념적 내용의 동일성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은 동일한 개념적 내용을 지니는 명제, 즉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와 '현명함은 소크라테스에게 들어맞는다'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 또한 그것들은 그러한 명제라는 기본 단위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것들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똑 같이 비자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과 램지의 입장에서는 프레게의 개념과 대상의 구분은 주어-술어 형식의 문장을 바라보는 기존 사고의 유물일 뿐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은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동일한 이름, 즉 '대상'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대상의 예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와 '현명함'이 『논고』의 대상인 것은 아니며, 우리는 그저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그러한 예를 제시했을 뿐이다. 대상은 우리가 명제들에 대한 **완전한 분석**의 결과와 함께 주어지는 요소 명제에 이를 때 그 구성요소들이 지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령 한 명제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한 요소 명제를 fa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f'와 'a'는 둘 다 이름이며, f와 a는 대상이 될 것이다. 요컨대 『논고』에서는 명제에 대한 완전한 분석 이후에 도달하는 요소 명제의 구성부분들이 가리키는 것, 즉 사물들뿐만 아니라 속성들과 관계들도 대상인 것이다.

당시 비트겐슈타인이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를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여러 저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극명하게 표현된 것은 다음의 언급이다.

> 2.01. "한 원자적 사실은 대상들(실물들, 사물들)의 결합이다." 대상들 등은 여기에서 시각적 공간 등에서의 한 색깔, 한 점과 같은 것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 단어는 한 명제에서를 제외하면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는 위의 언급을 참고하라. "대상들"은 또한 관계들을 포함한다. 한 명제는 한 관계에 의해 연결된 두 개의 사물이 아니다. "사물"과 "관계"는 동일한 수준에 있다. 대상들은 말하자면 한 사슬에서 걸려 있다.[47]

이 인용문은 리(Desmond Lee)가 1930-1931년 사적인 대화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대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논고』 2.01에 이어 여섯 개의 문장이 등장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의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분석은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

47) Wittgenstein (1980), p. 120.

참고문헌

박정일 (2014), “『논리-철학 논고』의 일반성 개념에 관하여”, 『논리연구』 제17집 제1호, pp. 1-31.

선우환 (2005), “프레게와 함수적 표현”, 『철학』 제83집, pp. 241-271.

러셀 (1989), 박영태 옮김, 『철학의 문제들』, 서광사.

몽크, 2000, 남기창 옮김,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1: 천재의 의무』, 문화과학사.

비트겐슈타인, 2006, 이영철 옮김, 『논리-철학 논고』, 책세상.

케니, 2002, 최원배 옮김, 『프레게』, 서광사.

프레게, 2003, 박준용, 최원배 옮김, 『산수의 기초』, 아카넷.

Anscombe, G. E. M. (1959),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London.

Black, M. (1964),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ew York.

Copi, I. M. (1958), “Objects, Properties, and Relations in the *Tractatus*”, *Mind*, No.266, pp.145-165.

Fogelin, R. J. (1987), *Wittgenstein*, second edition, Routledge, New York.

Frege, G. (1997), *The Frege Reader*, edited by Michael Beaney, Blackwell Publishing.

Glock, H. (1996), *A Wittgenstein Dictionary*, Blackwell.

Griffin, J. (1964), *Wittgenstein's Logical Atomism*, Oxford University Press.

Hintikka, M. B. & Hintikka, J. (1986), *Investigating Wittgenstein*, Basil Blackwell.

Pitcher, G. (1964),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Ramsey, F. P. (1931),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and other Logical Essay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Russell, B. (1911), "On the Relations of Universals and Particulars", in Russell (1956), pp. 105-124.

Russell, B. 1918,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in Russell (1956), pp. 177-281.

Russell, B. (1956), *Logic and Knowledge*,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Russell, B. & Whitehead, A. N. (1910), *Principia Mathematica*, volume 1, Merchant Books.

Stenius, E. (1960), *Wittgenstein's 'Tractatus'*, Basil blackwell, Oxford.

Wittgenstein, L. (1961), *Notebooks 1914-1916*, translated by G. E. M. Anscombe,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and Evanston.

Wittgenstein, L. (1922), *T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C. K. Ogde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Boson and Henley.

Wittgenstein, L. (1980), *Wittgenstein's Lectures, Cambridge, 1930-1932*, Edited by Desmond Le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adership General Education Institute

willsam@sookmyung.ac.kr

부록	Abstracts

ARTICLE ABSTRACTS

Frege's and Early Wittgenstein's Concept of Objects

Jeong-il Park

Are properties and relations objects in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essentially important problems concerning that question. That is, I will try to show that in a sense the concept of objects of the *Tractatus*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at of Frege, and moreover the former was suggested to overcome Frege's predicament concerning the concept of objects. In the process of our discussions, it must be kept in mind that these discussions have no relations with metaphysical disputes, but proceed only from a logical point view. Futhermore it is Ramsey that made a most decisive contribution on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I will try to show that in the *Tractatus*, properties and relations are objects via the discussions of Ramsey who was under the direct influences of Wittgenstein.

Key Words: Frege, Wittgenstein, Ramsey, Object, Concept, Property, Relation